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주최 경희학원 주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The Era of Urgency, a New Horizon for Political Norms”

2020년 9월 22일(화)~23일(수)
경희학원

취지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대재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지구행성을 뒤덮은 대유행병의 시름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 답의 실마리는 좀처럼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인류는 지금 한 마음이다. ‘빠른 역병 종식과 일상 회복.’ 그러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갈 온전한 해법은 아직 우리 손안에 없다.

우리 삶의 일상을 뒤흔들 위협의 실체는 또 다른 곳에도 실존한다. 올해 초 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충격적인 발표를 내놨다. ‘지구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자정 100초 전으로 설정한다는 발표다. 70여 년의 시간 설정 역사 이래 운명의 날 분침을 처음으로 초침으로 바꿨다. 지구 위기의 실상을 드러낸 가장 극적인 시간대다.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닌 핵위협과 파괴적 첨단과학기술의 위협,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는 기후 변화의 지구적 재앙이 초침 설정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인류를 위협하는 팬데믹 위기에 더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긴급한 과제다.

인류는 지금 국제사회의 경고처럼 절박한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지난해 유엔의 경고처럼 ‘굴복(surrender) 아니면 희망(hope)’이라는 극단의 선택지만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일까. 답을 내리기에 앞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다. 인류는 지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불투명한 미래의 시간대, ‘6번 째 대멸종(The Sixth Mass Extinction)’이 운위되는 전율의 시간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희학원은 유엔이 제정한 제39회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벼랑 끝에 내몰린 지구의제의 정치적 진실을 다룬다. 삶의 근원을 흔드는 지구 의제, 특히 기후변화의 추동인(推動力)에 주목하며, 지금 이 시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근원적 인식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왜 학계의 오랜 문제 제기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지구적 위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일까. 국익의 문제인가, 현실정치의 문제인가. 마치 전철수(轉轍手)처럼 위기 국면에서 종종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던 사회의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올해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은 위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미래사회, 미래세대의 앞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UN이 제정하면서 정례화 되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경희대가 UN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UN에 전달했고, UN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UN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당시 UN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6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모든 UN 회원국, 산하 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UN과의 협력 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다. UN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의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제안되던 무렵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상대 국민을 향해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달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프로그램

주 제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The Era of Urgency, a New Horizon for Political Norms

일 시 2020년 9월 22일(화)~23일(수)

주 최 경희학원

주 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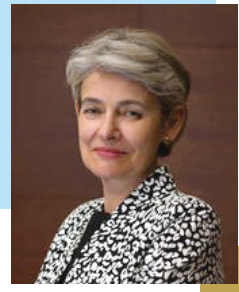
지 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개회식 9월 22일(화) 09:00~09:30	개회		
	세계평화의 날 개관		
	개회사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특강·대담 9월 22일(화) 09:30~12:00	축사	이리나 보코바 前 유네스코 사무총장	
	특강	주제	경쟁세계에서의 협력을 다시 요구한다
		연사	나오미 오레스케즈 하버드대학교 교수
	대담	주제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사회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대담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나오미 오레스케즈 하버드대학교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에미넌트 스칼라		
질의응답			

원탁회의 9월 23일(수) 10:00~12:00	주제	실존의 위기, 삶의 대전환을 위하여
	좌장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패널	스콧 세이건 스탠퍼드대학교 교수 박영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송재룡 경희대학교 교수 서세종 경희대학교 학생

※ 본 행사는 사전녹화로 진행되며 추후 본교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이리나 보코바

-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 겸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
-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이사회 위원
- 유네스코 사무총장(2009~2017)
-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1976)



스콧 세이건

- 스탠퍼드대학 정치과학학 교수
-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국제안보연구위원회 위원장
- 세계원자과학자협회 과학과안보위원회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치과학 박사(1983)



나오미 오레스케즈

- 하버드대학교 과학사 교수, 지구 및 행성과학 겸임교수
- UC샌디에고 역사학과 및 과학학 교수
- 티븐 H. 슈나이더상 기후과학 커뮤니케이션 부문 우수상(2016)
-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지질연구 및 과학사 박사(1990)



존 아이켄메리

-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
- 경희대학교 에미넌트 스칼라
-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정회원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정치과학 박사(1985)



박영신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사단법인 녹색교육센터 이사장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버클리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1975)



조인원

-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 경희대학교 총장(2006~2018)
- 세계시민포럼(WCF) 의장(2009)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1988)

개회식

인류의 '자정'이 멀지 않다. 남은 시간은 불과 1분 40초. 인류의 종말을 상징하는 시계(Doomsday Clock)가 지난 1월, 11시 58분 20초를 가리켰다. 1947년 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이래 종말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지구 곳곳에서, 그리고 인간 내면에서 빈발하는 이상 징후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의 긴급성을 알리고 있다. 기후위기를 비롯해 전쟁의 위험과 새로운 질병의 창궐 등 지구 차원의 난제가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인류의 미래가 인류 자신의 합의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 여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구종말시계 앞에서 위기의 긴급성을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 담론을 모색한다.

개회식 9월 22일(화) 09:00~09:30	개회	
	세계평화의 날 개관	
	개회사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축사	이리나 보코바 前 유네스코 사무총장

특강

과학혁명과 정치혁명을 거쳐 인류가 이룩한 현대문명이 거대한 역설과 마주하고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시장주의의 논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구 생태계를 계속 무너뜨리고, 인류의 독선과 무한경쟁의 시대가 지속된다면 그 종착지는 문명의 종말일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멈춰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 중 하나가 경쟁 체제를 넘어서는 '협력 체제'의 구축이다.

특강 9월 22일(화) 09:30~10:00	주제	경쟁세계에서의 협력을 다시 요구한다
	연사	나오미 오레스케즈 하버드대학교 교수

대담

인류의 실존적 위기는 정치규범의 새로운 지평을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적 해법을 긴급히 논의하는 장으로 특별 대담을 마련했다. 대전환의 시기에 과학사, 정치철학, 국제정치학의 화두를 치열하게 모색해온 3인의 지성은 지금 이 시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근원적 인식과 정치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왜 오랜 학계의 문제제기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지구적 위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않는 것일까. 어떤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한가? 패권국가들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지금, 정치구조의 향배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비상적 정치적 의지를 만들 방법은 없는가? 이 특별 대담이 다루고자 하는 일련의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긴급한 과제이다.

대담 9월 22일(화) 10:00~12:00	주제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사회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대담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나오미 오레스케즈 하버드대학교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경희대학교 에미넌트 스칼라
	질의응답	

원탁회의

현재 인류는 전대미문의 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COVID-19은 지구적 현실이고 이로 인해 인류의 미래 불확실성은 더욱 심각해졌다. 어쩌면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당연하게 될지도 모르는 지구 환경의 일대격변에 대한 경고일 수가 있다. 인류 문명적 차원의 위기에서는 일상적 대응을 넘어서는 창의적 대처가 필요하다. 긴박성에 대한 전지구적 인식의 확산과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일상이 모든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일상은 어떻게 창출될 수 있을지, 그 실천의 주체로서 세계시민사회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대학은 교육을 통해 어떤 변혁을 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원탁회의 9월 23일(수) 10:00~12:00	주제	실존의 위기, 삶의 대전환을 위하여
	좌장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패널	스콧 세이건 스탠퍼드대학교 교수 박영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송재룡 경희대학교 교수 서세종 경희대학교 학생

Peace BAR Festival 연혁

-한반도에서 몸, 문명, 우주까지

경희대학교는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UN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습니다.

1982~1990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 시대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1991~2000

1991	신국제질서: 21세기 탈이데올로기의 세계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2001~2010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2011~2019

2011	몸과 재양: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2012	인간, 정치, 문명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2017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
2018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
2019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